경계에서의 신호

Signaling Perimeters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SEO-SEOUL MUSEUM OF ART
Pre-opening Public Program

2021.9.28 - 11.7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www.seo-sema.kr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 서남권역에 마련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신규 분관으로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설 금천구 일대는 과거 도심 공업지대의 기억과 함께 IT, 패션 등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사회적 위기와 변화의 급물결 속에서 서서울미술관은 뉴미디어, 융합예술 분야 등을 매개로 예술과 산업, 일상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지는 사회적 예술 발전소를 지향하며, 모든 이들에게 열린 미술관을 제안한다.

서서울미술관은 개관에 앞서 해마다 사전프로그램을 개최, 개관을 준비하는 연구 사업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과 건립 과정을 공유하며 미술관의 공공성을 지속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지난해 2020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언젠가, 누구에게나»는 현실에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넘어 다성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만드는 미술관이 가능한지 질문하였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 시민들이 동행하여 미술관의 접근성 확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건립 방향,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발현되는 동시대 미술을 수용하는 수집 정책, 다음 세대가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예술의 역할, 지역 미술관으로의 정체성, 아시아 지역과의 연대 가능성 등 시대적인 주제들을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누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경계에서의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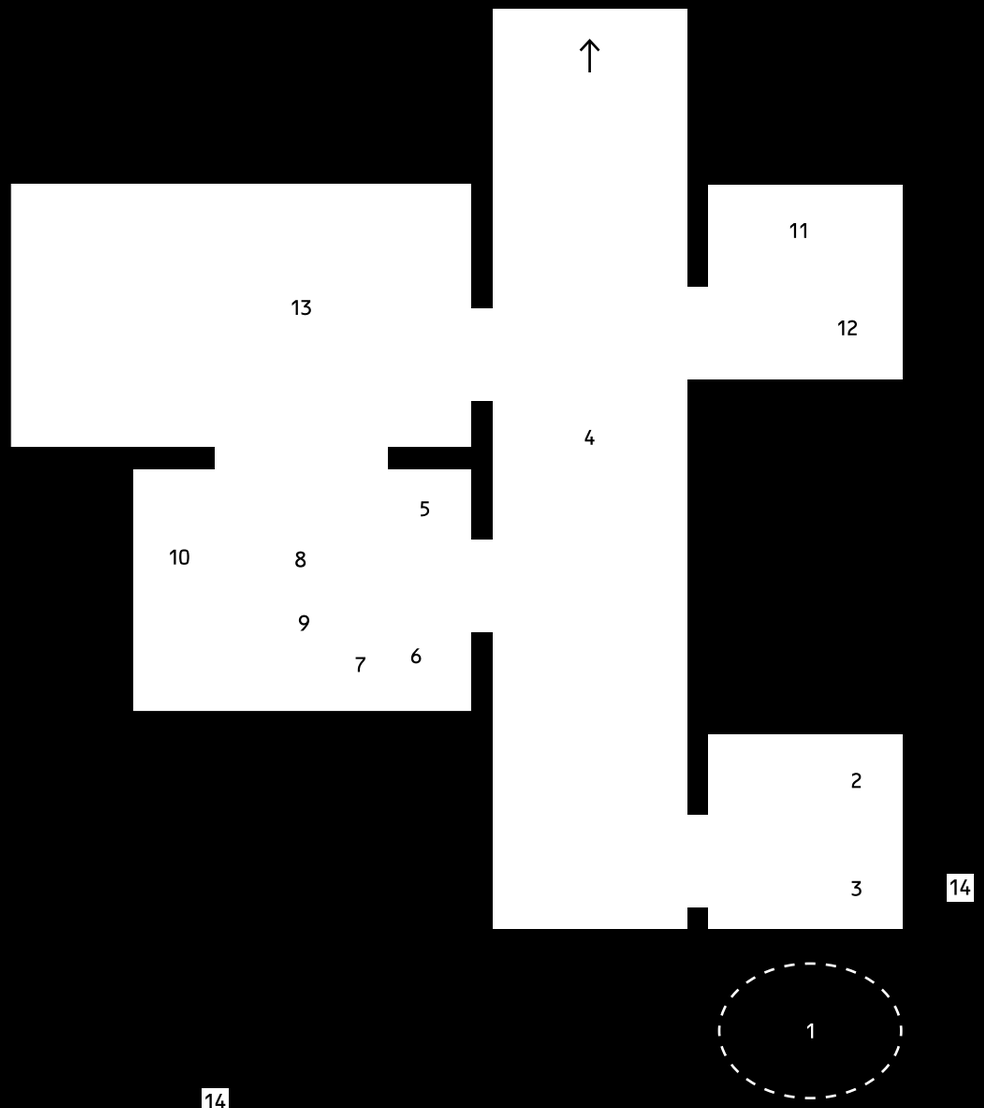
2021년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경계에서의 신호»는 '지역'과 '미디어'를 주제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고찰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삶과 공간에서 "미술의 대상은 누구이며, 미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전시는 두 가지 맥락이 공존한다. 첫 번째 <지역 : 기억과 증언>은 서남권의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거대 담론 아래 이제껏 누락된 개인의 삶에 주목하면서 도시, 공동체, 산업, 생태, 이주, 여성 등의 지역적 논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또한 지역 담론인 '트랜스 로컬'을 주제로 탈식민성, 소수성, 타자성, 주변성 등을 사유하며 다른 시대와 장소의 관계를 살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 머무르며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을 초청한다. 어딘가 경계에 선 작가들은 재현될 수 없고 엇갈리기 쉬운 기억, 물리적 이동과 정신적 이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 지역성, 지나버린 것이 남긴 풍경과 사회적 문제, 시간을 축적한 도시와 장소의 역사, 지리적·이념적 경계와 가치의 충돌 속에서 개인의 삶과 역사적 층위가 만나는 지점을 지속해서 탐구하고 기록해왔다.

두 번째 <미디어 : 경계와 신호>는 도시의 기반시설(하부구조)이 지역과 세계를 통합하며 발생시키는 공간, 신체, 젠더, 사회, 문화의 갈등에 주목한다. 특히 근대화의 과정에서 미학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내재된 장소의 논리와 의미, 사회구조의 차별적 규범들이 빠르게 네트워크로 흡수되는 상황들을 포착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으로 작가들은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고 시공간과 서사를 확장하며 정서적 거리를 만든다. 더불어 시각과 음성체계에 대한 사유와 재현,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안한다. 한편, 또 다른 미디어로서의 몸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속도에 저항하기도 한다. 고정된 가치에 대해 의심하면서 시간과 경험 간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물질의 밀도를 흩뜨리며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가시화한다.

<다매체 연구실>은 서서울미술관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지역과 공동체,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면서, 도시의 복잡성을 해석하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서남권역의 도시적 맥락과 근현대 역사, 지리적·개념적·문화적 경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과 개념을 매개하는 현대 도시의 공간과 인프라의 상호 작용을 고찰한다. 지역의 다중적인 역사와 공동체를 발굴하고 기록하면서 향후 예술가와 연구자, 기획자 등 미술관의 잠재적 사용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사전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현대 예술이 기술, 공학,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적 맥락에서 융합·확장하며 학제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래 환경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연구 모델을 만들어간다. 여기에 더하여 미디어 작가 연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상매체 작업의 변환을 살피면서, 매체 본연의 미학과 기술적인 특성을 재조명하여 전시와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시공간의 일상성을 구축하는 감각과 정서를 포착하여 기술기반 매체로 시적 스토리텔링을 시도한다.

작품배치도「정원, 1층」



1 정다운, 흐릿한 정원

2 우에타 지로, 파지

3 2020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록 영상

4 최찬숙, 밀려나고 새어나오는

5 송주원, 뽀루지.물집.사마귀.점

6 정재경, 어느 마을

7 장석준, 한뼘터

8 최찬숙, 밋찌나

9 신미정, '신도' 아카이브 자료

10 신미정, 출향

11 주용성, 사라진 목소리

12 장지남, 망각의 여정

13 <스크리닝 I>
- 송주원, 풍정.각(風情.刻) 푸른 고개가 있는 동네
- 송주원, 나는 사자다
- 정재경, 어느 마을
- 장지남, 회색 무덤의 주인들
- 신미정, 자신의 경로
- 신미정, 신도
- 신미정, 출향

14 주용성, 방향상실

스크리닝 시간표

송주원	풍정.각(風情.刻) 푸른 고개가 있는 동네, 나는 사자다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정재경	어느 마을 10:30 / 12:30 / 14:30 / 16:30 / 18:30
장지남	회색 무덤의 주인들 10:45 / 12:45 / 14:45 / 16:45 / 18:45
신미정	자신의 경로, 신도, 출향 11:00 / 13:00 / 15:00 / 17:00 / 19:00

2020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언젠가 누구에게나> 기록 영상 크레딧

- <일상의 미술관> 더시스템랩
- <미술관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다이애나랩, Oset 프로젝트
- <듣다: 3년간의 연구> 노경애, 위성희, 김은설, 전경호, 원하라, 고아라, 안마노, 해미 클레멘세비츠
- <고등작가 : 구름너머의 고도> 금천고등학교 1학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진저티프로젝트, 김영주,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정다운

흐릿한 정원

남서울미술관 현장 설치, 가변크기,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남서울미술관의 안마당은 늘 새로운 느낌이 든다. 깔끔하게 정돈된 안마당도 물론 아름답지만, 잔디를 깎기 직전의 좀 헝클어진 모습 또한 꽤 매력적이다. 무릎까지 무성해진 풀들이 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리는 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있자면 이곳이 도심 한가운데인 것도,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대로변 옆인 것도 잊은 채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에 머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작가는 안마당의 본래 모습과 새로이 연출되는 정원의 경계를 모호하게 구성하고자 했다. 예쁜 꽃과 잎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관객도 함께 느끼면서 잠시나마 온전한 '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이다.

정다운 b.1983
조각을 전공한 후 입체를 다루는 작업을 하던 중, 식물의 형태와 색감에 매료되어 집중하게 되었다. 독특한 수형의 식물을 수집하며 소개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해오다가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좀 더 확장하여, 식물과 자연을 모티프로 하는 조형 및 공간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에타 지로

파지 把持, Retention

종이에 인쇄, 사운드 장치, 가변크기, 2021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도쿄, 타이베이, 후쿠시마, 고치, 서울, 제주에서 찍은 사진에 메모를 덧붙인 설치 작품. 작가의 기억에서 불쑥 튀어나와 반복되는 장면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가장자리에 있던 것들이었다. 거리에서, 스테이지 뒤에서, 폐허가 된 건물에서, 펜스 바깥에서, 광장과 바다와 밭과 마당과 집안에서 목적 없이 찍었던 순간들이었다. 주변부의 사소한 장면들이 밖에서 밖으로 껑충 뛰어 갑자기 접합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어떤 기억의 연속을 말한다. 물대포가 하얗게 쏟아지던 종로의 거리와 고치 가츠라하마 바닷가의 포말이 접합되고, 옥바라지 여관 건물의 분말 소화기를 맞던 기억이 뿌려진다. 타이베이의 거리에서 가로수가 베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거기에 몸을 묶고 하루를 꼬박 매달려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장면. 타워크레인이 드문드문 서 있는 도시의 경계에 서서 작가는 자신의 기억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시킨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 그레이스 김)

우에타 지로(植田 二郎) b.1981
사진과 영상, 그래픽 디자인을 매개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나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분을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도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현장이라 불리는 곳에 머무르며 작업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예술공간 인포숍카페별꼴을 공동 설립했고 탈영역우정국,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했다. 장편영화 〈소음의 소음〉을 연출했고, 나라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했다.

최찬숙

밀려나고 새어나오는 Pushed Away and Leaking Out

3채널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6분, 2021

이 작품은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2차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 한 명이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이 여성의 무릎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호소나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몸을 낮추어 땅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신체 언어로 생각했다. 마치 핏줄과 살점과 같은 땅의 형상과 형체 없이 서서히 흐릿하게 해체되는 여성의 무릎이 소유와 경계로 구분 지어진 땅 위에 녹아들어 하나의 다른 표면을 형성한다. 고성이 오갔던 현장의 마이크 소리로부터 추출한 반복적인 사운드는 글과 함께 땅이 언제부터 인간의 몸과 분리되었으며, 소유의 물질로 전락한 땅은 과연 개체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밋찌나 Myitkyina

싱글채널비디오, 2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8분 30초, 2021

다수의 사진과 문서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지만, 단 한 명의 증언자도 나타나지 않은 버마 밋찌나의 위안부 여성 20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서류에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본을 구성하였다. 재현될 수 없고 엇갈리기 쉬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증언의 모순점과 피해자로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의 헤게모니에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존하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들을 다루는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최찬숙 b.1977
물리적 이동과 정신적 이주에 관한 서사학적(narratology) 실험은 전시, 렉처, 공연 및 출판 등의 다학제적 형식으로 재현된다. 특히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이주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파편들을 직접 마주하고 수집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인 지형과 새로운 지역성을 만들어 간다.

송주원

나는 사자다 I am A Lion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47초, 2019

1960년대 후반 시작된 서울시의 '선이주 후개발' 정책으로 어떠한 인프라 없이 성남(당시 광주)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20평에서의 삶은 성남시 태평동에 여전히 남아 있다. 태평동 다세대 주택촌은, 개인의 삶이 존중되지 않는 마을에서 살아내고 이어간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국가의 욕망과 폭력이 만들어 놓은 20평의 땅은 성남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개인의 기록이자 상징이다.

뾰루지.물집.사마귀.점 Pimple.Blister.Wart.Mole

3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 15초, 2021

해결되지 않은 40년의 상처와 공포의 시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낭독 퍼포먼스가 열렸다. 그때의 기도를 상상하며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거짓말 같은 오늘이 물집으로 자리한 옛광주국군병원의 작은 성당에서 무용가 공영선, 김호연, 나연우, 이주성, 임진호의 춤으로 기록한 퍼포먼스는 실제를 보지 않거나 듣지 않는 듯 역사의 시간을 재현한다. 이 작업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오월평화페스티벌 '오월낭독회' 낭독퍼포먼스의 일부이다.

풍정.각(風情.刻) 푸른 고개가 있는 동네 PungJeong.Gak(風情.刻) A Town with a Blue Hill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 28초, 2018

풍정.각(風精.刻)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으로, '푸른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청파(靑坡)동의 풍경을 담은 댄스필름이다. 청파동은 도시 서울의 출발지이자 도착지로서, 서울역을 바라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이 오래된 동네에는 일제시대부터 일본인이 모여 살던 적산가옥의 흔적과 600년이 넘은 은행나무,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만들어진 42개의 계단이 역사의 시간을 지키며 서 있다. 또 도시형 한옥, 서민형 양옥,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들, 낡음과 빠름이 혼재된 주거형 봉제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의 집들이 밀집해 있기도 하다. 청파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빽빽이 들어차 있는 고층빌딩 숲과 새로이 만들어져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서울역의 서울로7017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청파동의 시공간, 삶의 흔적들,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푸른 언덕이 있는 동네의 풍경을 몸짓으로 그린다.

송주원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비언어의 매체인 무용의 신체성 발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전문 무용수, 비전문 무용수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을 축적한 도시의 장소들에 주목하고 그 장소에 투영되는 신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질문들을 특정 장소의 리서치와 퍼포먼스, 전시, 상영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정재경

「 어느 마을 A Village 」

싱글채널 무빙 이미지, 컬러, 사운드, 12분, 2019

2018년 초부터 작가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단지에서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창작 프로젝트 중 2019년에 제작한 영상 작품이다. 헌인단지는 1964년 한센인 집단정착촌으로 형성, 1980-90년대 가구 단지로 활성화되었다. 2003년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고급주택단지 재개발 부도 사건이 발생한 후 개발이 중지되었고 단지의 80% 이상이 파괴된 임시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작품 속에는 헌인단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버려진 개들 중 일부를 돌보는 인물 A가 화자로 등장한다. 작가는 유기견과 인간이 이룬 이종 공동체가 대면한 윤리적 갈등에 집중하고 있다.

정재경 b.1975
도시나 일상에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지점을 추적하고, 이를 무빙 이미지와 아카이브 형식 안에서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헌인단지 장기 연구와 더불어 2020년부터 인천 구도심 지역에 대한 1년여간의 기초 연구를 거쳐 2021년 인천 신포 지역 연구, 창작 공간 shhh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전 〈코스모그라피아〉 (2019,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어느 장면〉 (2020-21, 신촌극장)을 열었으며, 현재 서울시-문체부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동대문구 최종작가로 선정되어 〈Reflect Project〉(2021-24)를 진행하고 있다.

장석준

「 한뼘터 」

AR 설치, 가변크기, 2020/2021

관객이 자신의 장소에 가상의 빈 땅을 펼쳐가는 참여형 작업으로, 증강현실로 구현된 나대지(건설지, 유휴지 등 도시의 여러 이권에 얽힌 노출된 땅을 이르는 말로, 작가가 2017년부터 2020년에 진행했던 작품 제목)의 시공에 접속하여 상호 작용하며 여러 시점으로 땅을 대면할 수 있다. 작가는 나대지의 표피들을 스캐닝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이동하는 가상의 땅을, 몸으로 소유 가능한 최소 범위로서 '한뼘' 정도의 크기로 생성했다. 관객은 도시의 곳곳에서 나대지를 쌓고 펼쳐내는 과정을 공유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무위의 층을 쌓아 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도시 공간을 비워 보도록 함으로써, 대지의 원형인 지각 위의 삶을 다시 인지하는 시간을 작동시킨다. 동시에 우주 속을 유동하는 행성 같은 원초적 감각을 상상하도록 한다. 대지를 향한 물질적 사고와 그 끝없는 기대를 재고하는 이 작업을 통해 작가는 인간을 지탱하는 터의 근원에 대해 인지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전달하고자 한다.

장석준 b.1981
디지털 화면의 평면성을 통해 파편화된 도시를 재현하는 〈평평한 도시(FLATCITY)〉 프로젝트로 현대자동차 VH Award(2015)에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6), 아르스일렉트로니카(2016), 대만관두비엔날레(2014)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 장소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공공미술에 관심을 두고 홍제유연 프로젝트(2020), 회현천년 이웃나무 프로젝트(2020), 자하담 프로젝트(2018) 등을 기획했다.

신미정

출향 出鄕, Leaving hometown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3분 3초, 2018

울산광역시는 1962년 2월 3일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도시이다.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 작업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울산에 정착한 출가 해녀 양순택(1933~)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 4.3사건 당시 불에 탄 고향 집을 두고 울산으로 정착하게 된 그의 기억은 일제 치하와 광복, 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치열하게 타지인으로 살아야 했던 개인의 삶을 그린다. 울산이라는 도시의 지역성에 과거 해녀로서 살았던 여성의 노동, 기억, 경험이 혼재된 제주의 지역성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도시인에게는 그저 휴식 공간에 불과한 바다가 고향을 떠난 한 여인의 노동과 삶의 투쟁 장소로서 어떻게 한국 현대사와 만나고 있는지 드러난다.

자신의 경로
Path of my life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1분 20초, 2016

속초에서 발견한 "자신의 경로"라는 제목의 일기장은 22살의 인민군 출신의 청년이 한국전쟁 당시에 직접 썼던 일기이다. 현재 84세의 권문국은 속초 아바이마을의 실향민 1세대이며, 그 일기장을 지금껏 보관하고 계신다. 속초는 해방 이후 38선이 생겼을 때는 소련군이 점령했던 북한의 지역에 속했던 곳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 한국사의 비극적인 시간을 담지하고 있다. 권문국은 격랑 속의 한국 역사와 그 당시의 삶이 녹아 있는 그의 일기장을 그의 목소리로 되살려 놓았다. 고향 상실에 대한 슬픔과 향수가 담겨 있다.

신도 信道
The way of Faith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41초, 2017

작가는 몇 년 전부터 20세기 초 동학(東學)에서 갈라져 나온 신흥종교로 대전 유성에 본산을 두고 있는 수운교(水雲敎)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종교적 신앙을 따라 스스로 타지인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과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 온 '이춘희'의 삶을 다룬다. 지역 공동체가 파편화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 당시의 '타지인'이란 단순한 삶의 질의 차원이 아닌, 생존 자체를 위해 현지인보다 훨씬 큰 노력과 희생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는 집단의 신념에 따라 이런 '길(道)'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또한 이들에게 부속되어 선택의 여지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야 했던 개인들은 그 '길(道)'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버텨내 왔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담담하게 담아냈다.

신미정 b.1983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프랑스에서 조형예술로 학, 석사를 졸업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는 한국의 지역 속 이방인들의 잊힌 역사를 이미지로 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4년 첫 개인전〈Self Defense〉과 〈폐공장 도난사건〉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의 지방 도시 익산(2015), 속초(2016) 대전(2017), 울산(2018), 서울(2019-2020)에 거주하며 디아스포라의 기억을 영상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장지남

회색 무덤의 주인들 Buried Tomb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4분 51초, 2021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상징들로 실체화되며 어떤 상징은 형성되고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위력을 과시하며 인류사를 지배해 왔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된 한국의 접경 지역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징물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분단의 역사와 각자의 경계선을 유지해 왔다. 한때 위용을 봄내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던 상징들은 이제 그 위력이 모두 제거된 채, 회색 콘크리트의 무덤만이 남았다. 첨예한 대립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기에 막연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다가 결국 한쪽으로 끝없이 무력하게 유보되어 무수한 상징들이 난립할 여지를 남겼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체는 상실되고 지배를 위한 구조로 변형되어 인류사를 재편해 나간다.

망각의 여정 Journey of Lost Memory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 59초, 2018

한국전쟁이 끝나고 파주의 곳곳에는 미군이 자리를 잡았다. 미군 부대 주변에는 군인들의 세탁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이 발달하였고 거기에 향락을 제공하는 산업이 가세하여 우리가 아는 기지촌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제 파주의 미군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과 기억은 마을의 형태와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 철거된 미군의 캠프 자이언트와 작은 뉴욕이라 불리던 선유리 기지촌은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경계 지어진 채로 덩그러니 남았다. 1979년에 선유리로 들어온 기지촌 여성 A. 그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어 살아야 했던 존재의 역사를 증언한다. 그리고 길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B의 필름은 술에 취해 해가 뜰 때까지 걷고 또 걸었던 30년 전의 그때를 다시 상기한다.

장지남 b.1980
서울의 북쪽과 DMZ 사이의 경계 지역을 탐험하고 있다. 이곳은 남과 북의 지리적, 이념적 경계이며, 안보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충돌 중인 경계이기도 하고 과거 국가 기억과 집단 기억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경계였다. 작가는 수년간 이 경계를 따라 공간과 사람의 이면을 들추며 이곳이 품고 있는 기시적 긴장감의 근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냉전 시대, 국가의 반공 프로파간다로 대변되는 국가의 기억과 공포가 베이스가 되었던 개인과 집단 기억을 끊임없이 교차하고 증폭시킴으로써 시대적 공포에 대한 실체와 허상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

주용성

사라진 목소리

시트지에 인쇄, 액자 설치, 327x467cm, 2021

2020년 2월 오키나와현 모토부 켄켄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은 1945년 5월 28일 자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이 계기가 됐다. 사진 속 공습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묘표에서 조선인 김만두와 명장모의 이름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75년이 흘러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젊은이들이 모여 발굴을 진행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수천에서 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오키나와에 끌려와 희생당했다. 발굴 현장과 인접한 집에 사는 나카무라 씨는 어린 시절 강제로 끌려와 일하던 조선인들에게 아리랑을 배운 경험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작은 항아리가 놓여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언제부턴가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 밖을 나가보면 늘 아무도 없었다고. 고민 끝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 마당 한쪽에 두었더니 비로소 물을 찾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7일간의 발굴이 끝났지만, 희생자들의 유해는 찾을 수 없었다.

방향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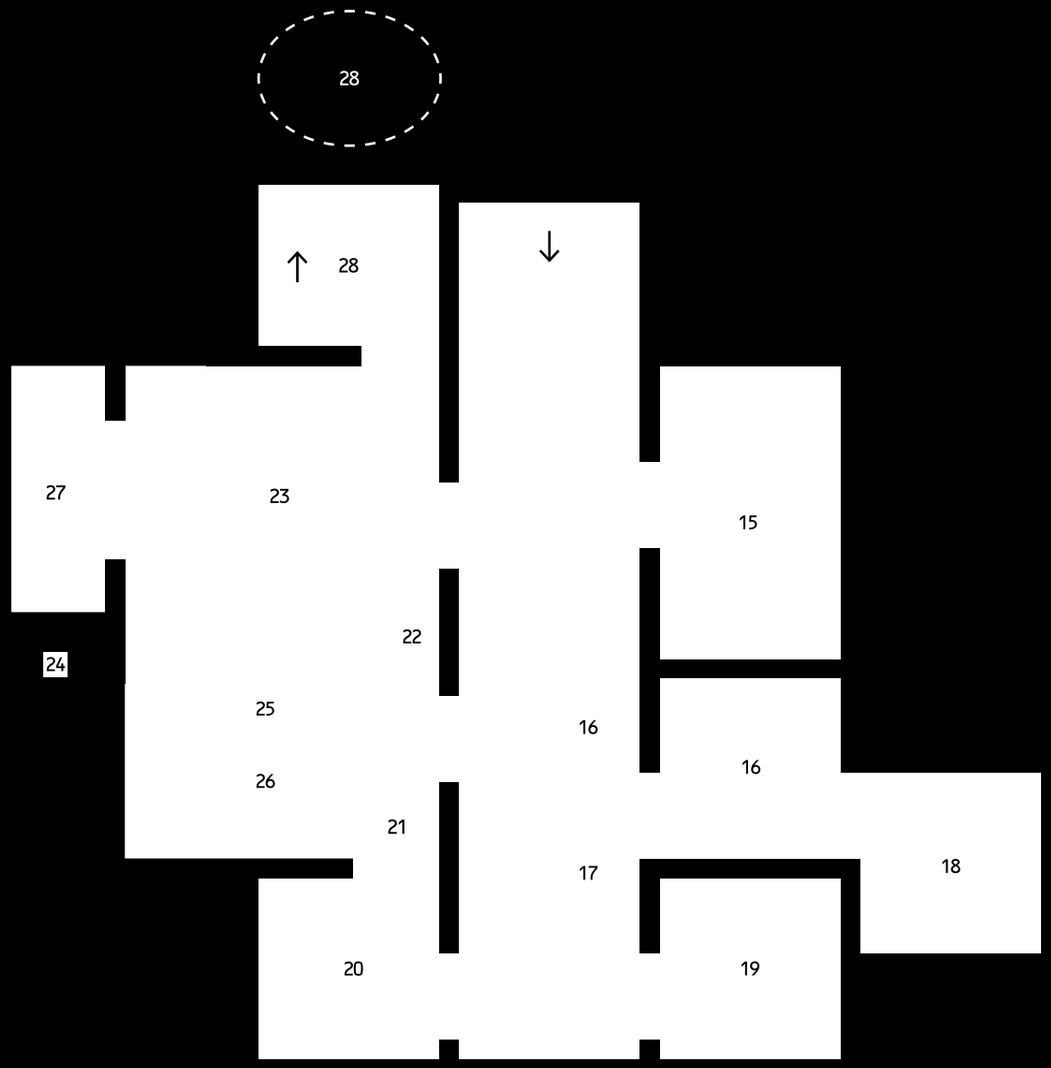
라이트박스, PVC 포일 위에 디지털 프린트, 가변크기, 2021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지만, 일상이 비일상이 되고, 비일상이 일상이 된 나날을 이방인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온갖 구호가 쏟아지는 시위 현장에서 의구심 같은 불안한 감정들이 교차하며 멀미가 났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지만, 불필요한 폭력과 부당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은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체제를 부정당하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역사적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던 홍콩인들은 그동안 당연시 여겨온 것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방향상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 영향력이나 장소와 시간 같이 친숙한 것에 대한 인식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작가 노트)

※ 2021.10.18. 설치

주용성 b.1989
지나버린 것이 남긴 풍경과 사회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죽음에 관심을 두고 사진을 찍고 있다.

작품배치도「2층, 3층」



15 <스크리닝 II>
- 권하윤, 489년
- 권하윤, 증거부족
- 정여름, 긴 복도
- 백종관, 추방자들
- 최찬숙, 밋찌나

16 이우기, 여전히, 반짝이는

17 수파(송률+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서울 Ⅰ&Ⅱ

18 사회참여 A. 장소, 젠더 그리고 A. 목소리

19 김영은, 표준음성

20 김방주, 두 의자를 통한 텔레포트, 나는 베를린과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늦지 않았고 초대도 받았거든

21 김방주, JAB BOOK

22 김방주, 나태하게 누워있는 나무조각

23 박지무, 사교클럽

24 박지무, 개똥이, 그것을 찾기보다 잃어버리는 편이 나아

25 백종관, 추방자들

26 정여름,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 정여름, 긴 복도

27 박민하, 렌더링

28 송민정, JOE

스크리닝 시간표

정여름	긴 복도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최찬숙	밋찌나
	10:40 / 12:40 / 14:40 / 16:40 / 18:40
권하윤	489년, 증거부족
	11:00 / 13:00 / 15:00 / 17:00 / 19:00
백종관	추방자들
	11:25 / 13:25 / 15:25 / 17:25 / 19:25

권하윤

489년
489 Years

3D애니메이션,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1분 18초,
2016

작품 제목은 분단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DMZ라는 약어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비현실적 공간이다. 한국전쟁 이후, 무장을 가속했던 공간이면서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게 유례없는 생태낙원이 된 공간이다. 이 특별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전직 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작가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릿하고 불안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려냈다. 가상현실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상상적 공간은 집단의 역사가 축적된 공간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기억이 담긴 주관적 공간이다.

증거 부족 Lack of Evidence

3D애니메이션,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1분 18초,
2011

이 작품은 나이지리아 태생의 오스카라는 인물에 대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이다. 오스카는 자신의 아버지가 종교적 의식에서 쌍둥이 형제를 살해하고, 자신은 도망쳐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문화에서 물질적 증거가 전혀 없는 오스카의 기억과 증언은 진실을 증명할 수 없다. 작가는 오스카라는 인물이 가진 기억과 기억 속에 담긴 정신적인 이미지를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 안에서 시각화하면서 재구성한다. 작품에서 질감과 그림자가 없는 선들로 구성된 3D애니메이션은 인공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오스카가 그린 그림 한 장과 그의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서류 한 장이 유일한 증거로서 실제(물질)의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시각화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가 충돌하는 내면의 복잡성이 한 층 더 강조된다.

권하윤 b.1981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는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파리 팔레드도쿄(2017), 두산갤러리(2018)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뉴욕 현대미술관의 닥포트나이트 영화제(Doc Fortnight, 2017) 등에 초대되었다.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2016)에서 금상, 아르스일렉트로니카(2018) 컴퓨터애니메이션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이우기

여전히, 반짝이는

엷은 떨림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밤, 180x120cm, 2018
바람섬2, 100x67cm, 2017
불, 60x40cm, 2015
녹아버린 바리케이드, 60x40cm, 2015
관사 앞 나무 세 그루, 100x67cm, 2018

2016년 봄, 착공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 군함이 들어오고 군인들이 마을 안을 활보하는 장면도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불편한 풍경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빠르게 흐르는 풍경들이 내뿜는 신호들은 더욱 강력해졌다. 참혹했던 멸망사의 과거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현재, 그리고 기시감처럼 펼쳐지는 미래가 보내는 지속적인 신호들이다.

이우기 b.1980
사람에 끌리지만 주로 보는 것은 풍경이다. 바라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2018년 개인전 〈거기, 반짝이는〉을 열었고, 사진집 ≪반복된 신호≫를 냈다.

수파 (송률+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서울 Ⅰ&Ⅱ Liquid Urbanism - Seoul I & II

라이트박스, PVC 포일 위에 디지털 프린트, 140x250cm,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능적 도시(functional city)'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분명한 경제적 이점을 갖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며,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도시 내 장애물로 이해된다. 이것은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호모 소시알리스 homo socialis (사회적 존재)로서의 거주민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호모 이코노미쿠스 homo economicus (경제적 존재)로서의 거주민을 위한 곳으로 변화시킨다. 더 이상 도시가 우리를 위하여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시를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 Liquid Urbanism 시리즈는 이러한 도시적 현상에 대한 저항이다. 기존 도시의 지도를 액체화하여 눈에 보이는 기능들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도시를 인식하는 다른 방식을 유도한다. 호모 파불란스 homo fabulans (서사적 존재)를 원한다. 서사적 존재는 생각하고 상상하며 다른 도시, 인본주의 도시, 모두가 평등한 도시, 모든 거주자의 재현과 표상이 평등한 도시 만들기를 시작할 것이다.

송률 b.1969
건축가이며 발행인이자 편집자. 서울과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에서 학업과 실무를 하였으며, 현재 수파 송슈바이처(SUPA Song Schweitzer)의 공동대표이다. 설계의 개념적 접근을 기반으로 건축의 언어와 영역 확장을 목표로 작업하며, 그가 발행과 편집하는 격월간 잡지 ≪SUPTEXT≫는 예술과 디자인을 통하여 일상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한다.

크리스티안 슈바이처(Christian Schweitzer) b.1971
건축가이자 교육자. 오스트리아 출생의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수파 송슈바이처의 공동대표이다. 2003년 프랑크푸르트 에른스트-마이-뮤지엄(Ernst May Museum)을 공동 설립했다. 그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현대 도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고 개념 설계, 예술 및 건축 이론의 교차 영역에서 작업하고 있다.

젠더 그리고 A. 목소리

창작 워크숍, 전시, 퍼포먼스, 2021
사회참여 A. 장소(SeA.P Workshop)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우리는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 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시스템을 원한다."
워크숍의 모든 과정은 창조적인 공동의 행위를 통하여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담론을 북돋우며,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기를 목표로 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장소, 젠더 그리고 사회에 관한 주제와 대면하게 된다. 주제에 관한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험은 글쓰기 형식으로 표현되며, 이 에세이들로부터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요구를 발췌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내재되어 있는 개인적 경험의 집합은 평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사회시스템에 관한 픽션과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다시 쓰기)로 응축된다. 낭독, 토론, 외부 초대손님의 참여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더욱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도전하기를 바라며, 워크숍의 과정과 결과물은 워크숍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전시로 이어진다. 워크숍의 마침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 앞에서 낭독 또는 대독하며, 모든 워크숍/전시/퍼포먼스 자료는 한정판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Session 1
: Gender & Equality
10. 3. (일) 14:00~17:30
- 워크숍 소개
- 참가자가 직접 써 온 에세이 낭독

Session 2
: Reality & Utopia
10. 10. (일) 14:00~17:30
- 젠더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차원으로 발전 및 확대

Session 3
:Identity & Representation
10. 17. (일) 14:00~17:30
- 초대 손님: 여성 건축인 모임 소파(SOFA)
- 에세이에 대한 토론과 참고 도서와 참고 작가 토론

Final Performance
: Gender, A Voice
10. 24. (일) 14:00~17:30
- 초대 손님: 한누리(연극배우, 그래픽디자이너)
- Session 3에서 발전된 에세이, 소설, 편지 등을 낭독하는 퍼포먼스 진행

김영은

표준음성 Reference Voice

3채널 사운드 설치, 악보, 16분, 가변크기,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엘리베이터부터 대중교통, GPS, 콜센터부터 최근의 인공지능 음성비서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기계장치에서 나오는 음성은 대부분 여성의 목소리이다. 작가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선별했다. 이 조건들은 여성 목소리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기계화된 여성 목소리에 대한 여러 해석, 그리고 여성 목소리의 몇 가지 물리적 속성 중에서 선택되었다. 작업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유사하게 노래하는 비여성 성악가는 가창과 더불어 그 소리만으로는 성별을 구분하기 힘든 혀 차는 소리, 치찰음 등 구강과 성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리를 사용해 노래한다. 주어진 작곡의 규칙에 순응하기도 미끄러지기도 하는 이 목소리들을 통해, 이 작업은 여성의 '목소리'라는 비물질적 도구를 위치 짓는 조건들에 대하여 재고하고 나아가 현실의 위계질서와 공명한다.

김영은 b.1980
특정한 소리의 감각적 경험과 역사적 층위가 만나는 지점에 주목한다. 로스앤젤레스 헬렌 제이 갤러리(2021), 베른시립미술관(2021), 로스앤젤레스 시립 갤러리(2020), 국립현대미술관(2020)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로스앤젤레스 인디비주얼 아티스트 펠로우십, 현대미술재단, 몬드리안 펀드 등에서 그랜트와 펠로우십을 받았다.

김방주

두 의자를 통한 텔레포트, 나는 베를린과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늦지 않았고 초대도 받았거든
A Teleportation Through Two Chairs, I Don't Have a Problem with Berlin Because I'm Not Late Also I Am Invited

영상 설치, 11분 2초, 2017

2개의 의자를 이용하여 작가의 생활공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슈투트가르트에서 전시가 열리는 공간을 거쳐 베를린까지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다. 지면과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이동은 그 여정이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시간과 정서적 거리를 가시화한다.

나태하게 누워있는 나무 조각

9개의 각목, 철선, 가변크기,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JAB BOOK

드로잉, 21×14.8×2cm,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김방주 작가의 드로잉은 김방주의 자아와 박지무 작가의 작업, 김방주가 드로잉에 이용하고 있는 연필, 종이 등 주변부와의 관계, 그리고 드로잉이라는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신체와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 환경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담고 있다. 김방주는 스스로의 자아를 시간성에 입각한 궤적으로 느꼈고, 시도했던 흔적들을 각 드로잉의 뒷면에 글로 남겼다. 이 수행은 박지무가 묘사했던 '죽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영향을 받았다. 박지무는 김방주의 드로잉을 보고 드로잉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흥미를 느꼈다. 김방주의 드로잉 중 <담배를 피고 다리를 떨면서>를 보고 시간이 늘어지는 것만 같은 감각을 느꼈다. 이후 박지무는 산책에서 발견했지만 조각의 상태가 되지 않았던 재떨이가 떠올랐다. 특히 그 속에서 사물과 시간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순간에 주목했다. 이처럼 완결되지 않은 대화는 상대방의 감각과 작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로를 가보지 못한 궤적으로 이끌었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이 대화의 과정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미래의 미술관과 수없이 관계할 대상들에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되길 희망하면서.

김방주 b.1985
2012년부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거주하다가, 코로나19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 중이다. 주로 퍼포먼스나 수행적 요소가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on't) Look at It/그것을 보거나, 보지 마시오〉(2020,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Studio Bosporus Festival, Kunstraum Kreuzberg/Bethanien〉(2021, 베를린), 〈유 캔트 풋 아웃 디스 파이어〉(2021,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우리가 전시를 볼 때 말하는 것들〉(2021, SeMA벙커), 〈Academiae Biennial – Where Plato Taught Teaching Art: Is it Art or is it a Fart?〉(2018, 포르테자) 등에 참여했다.

박지무

「 개똥이, 그것을 찾기보다 잃어버리는 편이 나아 」

전선, 고무호스, 고무점토, 셀락, 합판, 파이프, 와이어, 가변크기,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작품 제목은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원어로는 다음과 같다. Fulano de tal, más vale perderlo que encontrarlo. 남미의 한 소설가가 1979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느 대학에서 불멸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 사교클럽 」

흑연과 흙, 석고, 나무, MDF, 경첩, 160x120x115cm,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장소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법하다. 이 테이블에서는 비밀스러운 승리, 배신, 협잡꾼의 자세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미리 추측하는 것이 조건이 되었고, 흑연이 남긴 자국과 움직임들로 그것들을 추적해보았다. 경도가 강하고 서걱거리며 쉽게 부러지는 재료인 흑연과 휘어져서 지렛대로 사용 중인 나사를 관찰하며, 그것들의 무게중심에 맞춰 지그재그로 한쪽만 긴 구조를 가진 테이블의 형태를 떠올리게 되었다. (작가 노트)

박지무 b.1985
사물과 조각에 관해 가져보지 않은 다양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과 다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룬다. 사물을 선택하고 다른 위치에 놓아 보는 것은 수수께끼를 만들고 푸는 일처럼 예상치 못한 질문과 정확한 추측의 과정을 동반한다. 산책길에서 무심히 본 것,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알아챈 것, 그리고 기억한 것을 다시 망각하는 순간들을 관찰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종관

「 추방자들 Deportees : The history of Perception 」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27분, 2018

작가는 후쿠오카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연히 흥미로운 '시간'을 발견했다. 그 시간 속에서 인물들을 둘러싼 서스펜스는 빛과 어둠 그리고 시선의 관계 속으로 느리게(혹은 갑자기) 전이될 수 있었다. 작가는 하나의 정지된 프레임 안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내러티브들이 교차하고, 점멸하는 과정을 구상했다고 한다.

백종관 b.1982
전자공학, 심리학, 영화를 전공한 후 리서치와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영상 제작과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일상의 다양한 국면에서 마주치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그 기록과 기억을 재맥락화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규정하는 구조들을 돌아보는 동시에 시각 매체에 대해 사유하는 작업을 만들고 있다.

정여름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
Graeae: A Stationed Idea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33분, 2019/2021

동네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 이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동네를 돌며 하는 증강현실 게임에는 일정한 모습을 한 군사들이 있다. 군사들은 길도,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폭력의 모뉴먼트를 기준 삼아 주류한다. 이 장소는 실재를 바탕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실재는 아니다. 이 작품은 자기충족적인 예언에 기댄 미국과 미군의 공중누각을 관음하는 데서 출발하여, 한 장소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은밀함을 조망한다. 새들의 소리 없는 비상이 기류를 알려 주듯 어떠한 징조는 보이는 것을 앞지른다.

긴 복도 The Long Hole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36분, 2021

탐정은 우연히 받은 엽서에 이끌려 주한미군 기지 캠프 롱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한다. 캠프 롱은 20년 동안 발길이 끊겨 폐허가 된 상태다. 탐정은 방치된 정보를 발굴-조각모음-배열하는 과정에서, CAMP LONG ATM이라는 기묘한 지리 데이터값이 모든 시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어떠한 금융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고 선홍색 핏자국만이 증거를 가장하고 있다. 이 작업은 시간의 유산을 이해하려는 한 탐정의 보고서로서 "역사에서 떨어져 나온 잔고(restbestand)"를 추리한다.

정여름 b.1994
장소와 기억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매체로 변사한다. 한 지점에서 등장하는 서사를 집착적으로 관찰하여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그 본체와 부품을 도려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합정지구에서 개인전 〈HAPPY TIME IS GOOD〉을 개최했다.

박민하

렌더링 Rendering

싱글채널비디오, AR설치, 컬러, 사운드, 14분,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요즘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타투(문신)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이미지들을 몸에 이식해 함께 살아갈 때, 그 몸은 예전과 다른 매체로 변환되는 것일까? 작가는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타투 기술로부터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미지의 계보들을 생각하면서, 신작 렌더링 은 기원전500년경 지금의 남미지역 나스카-파라카스 문명이 남긴 지상화(geoglyph)와 타투 컬처, 그리고 AR(증강현실) 기술을 연결시킨다. 각기 다른 연대기의 세 가지 그래픽 기술들은 작품 안에서 병치되고 겹쳐지면서 하나의 리듬감 있는 의식(ritual)으로 종합된다. 몸을 움직이면서 동선을 따라 걸으며 사막 표면에 그려 놓은 거대한 그림, 인간의 피부로 생체화된 촉각적인 형상들, 신체의 움직임을 소유한 미디어. 이들은 모두 신체와 연결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변신술로 작동한다.

박민하 b.1985
주로 영상 작품을 통해 시각 체계, 환영의 작동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박민하의 영상 및 설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AALA 갤러리 등에서 다수 전시되었다. 또한 그의 영화는 국내외 영화제에 상영됐으며, 에든버러국제영화제(2018)의 베스트 단편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과 이미지스페스티벌(2014)에서 Vtape Award를 수상했다.

송민정

JOE

영상 설치, 가변크기, 2021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제작 지원

메모, 문자 메시지, SNS에 남긴 글, 시나리오, 시, 번역기를 경유하며 채집한 문장 등 서로 다른 형식으로 쓰인 여러 개의 이야기가 한 장소 위에 놓여 있다. 공간, 화면, 사물 속에 숨겨진 말들을 쫓아오도록 지시하는 이 작품의 서사는 이동하는 몸을 통해 배후의 세계로 향하는 틈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줌(zoom)을 당길수록 흐려지는 화면처럼 이 이야기의 목적지는 불분명하고, 연결을 방해하는 찌꺼기와 구멍으로 가득하다. JOE 는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찾기 위해 짐작으로 남아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송민정 b.1985
스크린에 기반한 사용자의 경험과 행동을 실험하며 다중 계정, 외국어 내레이션, 스크린을 경유하는 이미지로 실재 생태계를 구성하는 허구적 이미지들을 재현한다. 서사의 발생을 통해 세계를 마주하며, 스스로 행위자가 되거나 관찰자, 사색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한다. 〈COLD MOOD(1000% soft point)〉(2018, 취미가)와 〈Double Deep Hot Sugar-The Romance of Story〉(2016, 반지하)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2020 부산비엔날레 〈열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밤이 낮으로 변할 때〉(2019, 아트선재센터), 〈젊은 모색〉(2019, 국립현대미술관)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예술가 수업

'예술가 수업'은 건립 예정의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에 대한 사전 연구로서 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가족, 일반인,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다매체연구실>에서 예술가가 주축이 되어 교육 대상과 그에 알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총 5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미술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동시대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의 실험적 모델을 구상해 본다. <몸, 땅, 미디어>는 동시대 광학 매체를 나의 몸의 관제 시스템으로 연장하여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와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청소년을 생산자로 전환하며, 도시를 관통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상 제작 워크숍이다. <기념품 제작소>는 버려지고 망각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외의 비인간에 주목해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기념품을 제작한다.

한편 가족 단위의 관객이 참여하는 <그녀와, 리듬에 맞춰>는 주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각자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오늘의 그림>은 오늘날 높아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그리기'로 표현한다.

장석준

몸, 땅, 미디어

일시: 10.2.(토) 10:00~12:30
10.9.(토) 10:00~12:30
진행: 장석준
도움: 정다혜
참여: 김민채, 김재민, 김희서, 이영민, 하주연(서울미술고등학교 1학년)
김지우, 임다영(서울미술고등학교 2학년)

동시대 광학 매체를 활용하여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워크숍이다. 인간을 제외한 다양한 개체로 변신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고프로를 몸에 부착, 몸의 관제 시스템 즉 창작자의 눈으로 연장하며 신체와 장소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이미지와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특징적 에너지가 반영된 다른 시간과 속도, 무게 등 물리적 변화를 촬영에 반영한다. QR 태그, 증강현실(AR) 등 만들어진 영상의 시청 방법까지 고민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코드는 교내 곳곳에 설치한다.

※ <몸, 땅, 미디어>는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장석준 b.1981
디지털 화면의 평면성을 통해 파편화된 도시를 재현하는 〈평평한 도시(FLATCITY)〉 프로젝트로 현대자동차 VH Award(2015)에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6), 아르스일렉트로니카(2016), 대만관두비엔날레(2014)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 장소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공공미술에 관심을 갖고 홍제유연 프로젝트(2020), 회현천년 이웃나무 프로젝트(2020), 자하담 프로젝트(2018) 등을 기획했다.

황문정

기념품 제작소

일시: 10.5.(화) 17:00~19:00
10.7.(목) 17:00~19:00
10.21.(목) 17:00~19:00
진행: 황문정
도움: 김푸르나
참여: 김나연, 박선우, 정윤서, 조희아, 윤정민, 이예나
(서울미술고등학교 2학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영일상회'의 시스템을 차용하여 내가 생활하는 학교 주변에서 발견한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는 워크숍. 버려지고 잊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에 주목하여 이를 기록하고 기억한다. 서울미술고등학교 뒤편의 까치산 근린공원을 탐방하고 나만의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수집한다.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연물도,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대상도 가능하다. 그 존재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남서울미술관에 전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우리 주변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기념품 제작소>는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황문정 b.1990
황문정은 도시 안에서 인간 외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비인간으로 칭하고, 생성과 소멸의 시점이 불분명한 이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매일 변화하는 도시를 하나의 큰 생태계로 바라보며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비인간을 인지하고, 그 경계를 흐리게 한다. 송은아트큐브(2018), 사이아트큐브 갤러리(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부산현대미술관(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0), 두산갤러리(2019)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인천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일상회'를 운영한다.

조영주

그녀와, 리듬에 맞춰

일시: 오전반 / 10.16.(토) 10:30~12:30
10.23.(토) 10:30~12:30
오후반 / 10.16.(토) 14:00~16:00
10.23.(토) 14:00~16:00
진행: 조영주
도움: 김하림(한국달크로즈연구소 전문강사, 음악치료강사)
참여: 2인 이내 가족(회차별 정원 12명 내외)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입하고, 이를 몸으로 표현하는 워크숍이다. 나만의 몸짓과 목소리로 '그녀'에 대해 대화하고, '그녀'의 장소와 물건을 탐색하고, '그녀'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그녀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신체의 움직임과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고, 스캣과 독백 등 리듬감 있는 연극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감수성과 창의력, 표현력, 집중력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달크로즈 교수법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그녀와, 리듬에 맞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조영주 b.1978
여성의 삶을 주제로 퍼포먼스, 설치, 사진, 영상 작업을 한다. 사회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편함과 부조리함을 표현하고 성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을 소재로 어린이, 청소년, 중년 여성 등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와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관객 참여 워크숍을 진행한다. 대안공간루프(2020), 서울로 미디어캔버스(2020), 플레이스막(2019)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송은아트스페이스(2021), 금천예술공장(2020), 사비나미술관(2019), 국립현대미술관(2018)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엄유정

오늘의 그림

일시: 내 방의 식물(정물) / 10.18.(월) 19:00~21:30
내 밖의 식물(풍경) / 10.25.(월) 19:00~21:30
진행: 엄유정
참여: 일반인(회차별 정원 10명 내외)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집과는 좀 더 가까워졌다. 실내 활동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 중 우리는 실내 식물,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우리를 스쳐 지나간 외부 풍경을 주제로 두 번의 수업을 진행한다. 연필, 오일 파스텔, 색연필, 펜촉 등의 건재료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기보다, 다양한 재료와 가까워지며 자유롭게 그려보는 자리다.

※ <오늘의 그림>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엄유정 b.1985
사물이 가지는 고유의 생김새와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드로잉과 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여 표현한다. 최근에는 꽃과 나뭇잎 등 식물의 고정된 형태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의 기하학적인 요소와 리듬감, 색감을 찾아 섬세하게 그린다. 소쇼(202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9), 갤러리팩토리(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토탈미술관(2020), 경기창작센터(2020), 대전시립미술관(2020), 디뮤지엄(2019)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세진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일시: 10.20.(수) 17:00~19:00
10.22.(금) 17:00~19:00
10.27.(수) 17:00~19:00
10.29.(금) 17:00~19:00

진행: 김세진

도움: 김무늬, 조나단 리

참여: 김나연, 김소래, 박다예, 이예준, 장서진, 채희승, 한승빈
(서울미술고등학교 2학년)

우연히 친구의 노트를 집으로 가져오게 된 주인공이 다음날 친구가 숙제를 하지 못해 곤란하지 않도록 친구의 집을 찾아 동네를 헤매는 내용을 그리는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공동체 정신과 소통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 워크숍은 영화의 주제와 같이 지역을 관통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제작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기획과 촬영, 편집과 시사로 이어지는 4회차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는 편집에 필요한 사운드, 모션캡쳐와 모션그래픽을 활용하는 3D 프로그램 등 확장된 영상 제작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시사를 통한 가상의 개념을 경험할 수 있다.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김세진 b.1971
영상 프로듀서이자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거대한 도시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영화와 다큐멘터리 기법을 빌려 표현한다.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영상 매체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최근에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송은아트스페이스(2019), 문화역서울284(2014)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백남준아트센터(2020), 국립현대미술관(2020), 서울시립미술관(2017)에서 열린 전시와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2020),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2020) 등의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예술가 수업 일정표

<몸, 땅, 미디어>	10.2.(토) 10:00~12:30
	10.9.(토) 10:00~12:30
<기념품 제작소>	10.5.(화) 17:00~19:00
	10.7.(목) 17:00~19:00
	10.21.(목) 17:00~19:00
<그녀와, 리듬에 맞춰>	10.16.(토) 10:30~12:30
	10.23.(토) 10:30~12:30
	10.16.(토) 14:00~16:00
	10.23.(토) 14:00~16:00
<오늘의 그림>	10.18.(월) 19:00~21:30
	10.25.(월) 19:00~21: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0.20.(수) 17:00~19:00
	10.22.(금) 17:00~19:00
	10.27.(수) 17:00~19:00
	10.29.(금) 17:00~19:00

협조	서울미술고등학교 정광성 부장교사
	서울미술고등학교 김나영 교사
사진, 영상	더도슨트
	지미픽쳐스

관람 안내

무료 관람

관람 시간

평일(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남서울미술관
지하철 2호선 : 사당역 6번출구 - 도보1분
지하철 4호선 : 사당역 4번출구 - 도보3분
전화번호 : 02-598-6246, 6247

사전예약 안내

※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전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예약 시작 시간 30분이 지나면 입장이 불가하며,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yeyak.seoul.go.kr

예약하신 분께서는 예약시간에 맞추어 남서울미술관 1층 안내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입장제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자
- 최근 2주이내 해외방문자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 최근 2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자

경계에서의 신호
Signaling Perimeters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Seo-Seoul Museum of Art
Pre-opening Public Program

2021. 9. 28. - 11. 7.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www.seo-sema.kr

주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시립미술관

기획
이성민 학예연구사

교육
이상아 학예연구사

연구
김경현 학예연구원

제작·홍보
B파운데이션(호경윤, 임다울, 김민규, 최지혜)

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제이

그래픽디자인
조은지스튜디오(조은지, 조예림)

미디어장비
주영미디어(기술감독 엄현수)

공간구성
디자인본(한정우, 이태원)

전시디자인
프랍서울(김동희, 이지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총괄
주용태 문화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

박물관과
이성은 박물관과장
최우진 박물관사업팀장

학예
이성민 학예연구사
이상아 학예연구사
이진호 학예연구사
김경현 학예연구원

건축
이현주 주무관

행정
이지영 주무관

서울시립 미술관
총괄
김희진 학예연구부장

학예
고원석 전시과장
한희진 주무관
이승아 주무관

교육홍보
봉만권 교육홍보과장
정지혜 주무관
이연미 주무관
이은주 주무관
유수경 주무관
권지은 실무관

행정
봉만권 교육홍보과장
신현성 주무관
박도복 주무관

남서울미술관
이우진 실무관
김시종 실무관
박병태 실무관
김정숙 실무관

주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시립미술관

Hosted by
Culture Headquarter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useum of Art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